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北 인구 1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

전 세계에서 4000만여 명이 현대판 노예

북한 인구 1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호주 인권 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발표한 ‘2018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강제 노역이나 강제 결혼 등으로 현대판 노예 처지에 몰린 사람은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소녀를 비롯한 여성은 71%, 나머지는 소년을 포함한 남성이었다. 특히 북한은 현대판 노예가 260만여 명으로 인구당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현대판 노예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전체 인구 13억 명 중 1840만여 명인 인도로 나타났다. 에리트레아와 부룬디도 북한과 함께 현대판 노예 비율이 높은 상위 3개국으로 지목됐다.

조사를 진행한 피오나 데이비스는 “이들 3개국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함께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이 현대판 노예의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에 꼽혔고, 이들 나라가 전체의 58%를 차

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노예 상태의 원인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강제 노역으로 내모는 억압적인 정권과, 범죄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역분쟁을 꼽았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현대판 노예들이 생산한 컴퓨터, 휴대전화, 의류, 코코아, 사탕수수, 어류 등 3054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인구 1000명당 1.95명인 9만 9000여 명 정도가 현대판 노예에 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GNPNEWS]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에베소서 6:9)

기도 |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낮게 여기고 노예를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처럼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창세전 원형의 생명으로 회복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다



제공: WMM

- 파키스탄의 아이들

아이들의 시선이 한곳에 모였다. 각자의 얼굴마다 호기심과 익살, 소망이 담겨있다. 한 명 한 명 시선을 맞추어 보니 모두의 눈이 나의 눈과 마주친다. 친구의 얼굴에 한쪽 눈이 가려져 있는 아이도, 뒤쪽 구석에서 심각한 얼굴이 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바라보는 아이도, 서로 상황과 모습은 다르지만 눈이 마주

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전달되어 오는 기분이다.

우리는 처지와 상황, 소망과 바람이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을 바라며 산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 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풍랑과 위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좌절은 하

나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 가운데로 돌려놓는다. 어느새 문제에 휩싸인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보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우리의 눈과 마주치기 위해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GNPNEWS]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다”(시편 123:1)

다음 호는 8월 19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2)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닌가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남의 나라 역사책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요?” 맞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을 읽으면 완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를 주시려면 좀 그럴듯한 나라를 택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후 1800년 이상 흩어져 나라 없이 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의 나라 역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쓰인 역사책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면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경영하셔서 당신을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이 지닌 모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긴 것 같고, 단어도 생소하고, 슬쩍 보니 골치까지 아릅니까? 만약 연애편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길고 어렵다고 내팽개치겠습니까? 고백이 길면 길수록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어려워도 힘들어도 타인에게 물어서라도 뜻을 알아가야 합니



일라스트= 김경선

다. 당신을 살리기 위한 애타는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한국

순회선교단, 7월 26일 ‘복음학교 컨퍼런스’ 개최 2면

기획 |

전 세계 2억 1500만 명 그리스도인, 극심한 압박 3면

인터뷰 | 김사원 형제

“주님 사랑에 매여, 더욱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존재적 죄인의 최후 절망”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순회선교단, 7월 26일 ‘복음학교 컨퍼런스’ 개최



올해로 17년째 국내외에서 복음학교를 통해 복음의 총체적 진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 순회선교단이 처음으로 ‘복음학교 컨퍼런스’를 갖는다.

순회선교단은 7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복음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날 발표에는 그동안 복음학교

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교회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의 진리를 접목한 이후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생생한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정용비 목사(전주온누리교회), 박원옥 목사(산돌교회),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와 해외 한인교회 등 다양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 이날 컨퍼런스에는 2002년 소수의 목회자와 선교사 등 사역자 중심으로 복음학교가 시작된 이후, 목회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목회자 복음학교, 해외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통역을 거쳐 이어져온 다양한 형태의 복음학교 역사도 소개된다.

복음학교는 김용의 선교사가 주강사를 맡았으나, 2년 전부터 이 단체 선교사들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 및 교육계 종사자 및 목회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훈련과정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 복음의 실재를 삶에서 경험한 여러 언어권의 강사진들이 세워져 한국어 외에도 영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등 다양한 언어와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수십 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복음의 진리에 뜻을 함께하는 연합체인 복음기도동맹 선언문에 동의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등을 통해 청소년복음수련회, 청소년복음캠프, 문화복음캠프, 복음스터디 등 다양한 형태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 [GNPNEWS]

아시아

인도 내 반기독교 정서 증가... 2주 동안 15번 공격 발생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지난 2주 동안 최소 15번의 공격을 받았다고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공격에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개종 강요,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했다는 거짓 고소, 신체적인 폭행 및 교회 파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7월 6일에는 자르칸드 주 쿤티 지역의 기독교인 6명이 힌두교로 강제개종을 당했다. 같은 날 자르칸드 주도인 란치 인근의 한 마을에서는 6개 기독교인 가정의 7월 15일까지 기독교 신앙을 버리

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7월 8일,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타밀나두 주 한 마을의 기도의 집에 있던 3명의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다. 이들은 목회자 사모의 옷을 벗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경찰에 기독교인들을 거짓 고소했고, 경찰은 4명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 7월 15일, 차티스가르 주에서는 힌두교인들이 한 기독교인 가정과 대화를 하는 주민들에게 1만 루피의 벌금을 물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차티스가르 주 인



▶ 안드라 프라데시의 한 교회가 공격받은 모습(출처: nchsbands.info 사진캡처)

근에 위치한 라젠드라 나가르의 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던 중 공격을 받았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경찰서 안에서도 힌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ICC 측은 “일련의 사건들은 인도 내부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GNPNEWS]

한국

청소년,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복음캠프 8.15~17

문화선교단체 문화행동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문막말씀세상(구 원주청소년수련원)에서 문화복음캠프 ‘더 액세스(The Access)’를 개최한다.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공연을

통해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 ‘더 액세스’는 성경이야기로 엮은 공연과 참가자들이 직접 짧은 극을 만들며 복음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이번 캠프부터 성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원서접수는 문화행동아트리 홈페이지(www.gospelartree.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7월 5일부터 21일까지. 문의 ☎ 010-2648-8255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15~7.2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난 문제, 영적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분명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스페인 새 성범죄법안 발의

스페인에서 분명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성범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에 스페인 법원이 내린 솜방망이 판결에서 촉발됐다.

주님, 성범죄로 고통 당하는 스페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동의를 없는 성관계를 문제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사탄의 속임을 파하시고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창조된 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여 주소소서.

日도 ‘덜다 더워’... 폭염에 이틀간 8명 사망·3천여 명 병원행

서일본 지역이 ‘비 폭탄’으로 초토화된 데 이어 일본 전역에 폭염이 덮치면서 14~15일 이틀간 온열질환 추정 증세로 구급 이송된 사람이 15일 전국에서 1495명이었으며 2명이 사망했고, 14일에는 1535명이었으며 사망자는 6명이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전했다.

폭우와 태풍에 이어 폭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숭배’에 반대하는 움직임 단속

상하이에 사는 한 여성이 지난 4일 “시진핑의 독재 전체적인 폭정에 반대한다”며 시 주석의 얼굴 사진에 먹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숭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고 있어 치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전했다.

주님, 개인의 자유를 당국의 갖은 노력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중국에서 넉넉히 이기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결로 중국 전역을 덮으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7월 30일~8월 11일

7월 30일~8월 4일

▶경남 성남 / 선한목자교회 (손**)010-3913-2677
7.30, 8.1~4(매일 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7.30~31, 8.2~3(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30~31, 8.2~4(매일 10:30~11:30)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7.30~31, 8.2~4(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7.30~8.1(매일0~24시) ▶경남 김해 / 진영대성교회 (박**)010-3930-6296
7.31(10~1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7.31(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7.31(12~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 (임**)010-2276-8221
7.31~8.3(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8.2(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8.2(10:30~12:30) ▶경기 수원 / 영어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8.3(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8.3(20~24시) ▶전남 광주 / 삶이예배인교회 (진**)010-3305-3541
8.4(06~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김**)010-7770-9191

8월 6일~8월 11일

▶캐나다 밴쿠버 / 안산은총&밴쿠버 (전**)010-5337-2771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8.6(0~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 (박**)010-9326-7767
8.6, 8~11(매일 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8.6~7, 9~10(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8.6~7, 9~11(매일 10:30~11:30)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8.6~7, 9~11(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8.6~11(매일 08~22시) ▶부산 남구 / 변영로교회 (고**)010-7176-6801
8.7(10~1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8.7(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8.7~10(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8.8(0~24시) ▶경기 수원/진흥교회 (남**)010-8268-6879
8.9(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8.9(10:30~12:30) ▶경기 수원 / 영어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8.10(0~24시) ▶전북 전주/사랑하는교회 (이**)010-7709-0691
8.10(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8.10(10시)~1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8.10(19시)~11(19시) ▶k / 엘도스공동체 (노**)070-4065-0699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 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전 세계 2억 1500만 명 그리스도인, 극심한 핍박

매월 255명 기독교인 순교, 104명은 납치, 180명 기독교여성 강간, 성폭행 당해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브레이크포인트가 최근 기독교 문화 평론가 에릭 메택스, 스탠 거스리가 기고한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요약이다. [편집자]

많은 미국인들은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들을 보면 구조하려는 열정이 넘친다.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구하는 프로젝트에도 향길 바란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50년 전에 있었던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1963년,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에서 소련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억압당하는 유대인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미국 전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들은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변 지인들, 기자들, 비지니스맨들, 정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번졌다. 1973년에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 고문 척 콜슨을 소련으로 파견해 유대인들의 이민을 촉구하는 압력을 가했다.

유대인들의 안전한 이민을 격려하기 위해 이민을 원하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적힌 팔찌를 차고 다니는 운동이 시작됐다. 레이건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기 위해 팔찌를 책상에 두고 다녔다. 이렇게 대중들이 참여함에 따라 입법부도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정치적 압력도 잇따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소련이 붕괴된 것이다. 물론 핏말이나 팔찌 때문에 소련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역사에 한 걸음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이 같은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50년 전에 박해받던 유대인들보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핍박당하고 있다. 핍박받는 성도를 구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박해받는 크리스천 연합

(Save the Persecuted Christians Coalition)'에 따르면 2억 150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강간, 투옥, 강제 결혼, 폭행, 살인과 같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매월 255명의 크리스천이 순교하고 있으며, 104명이 납치를 당하고 180명의 기독교 여성이 강간, 성폭행,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다. 또한 매월 160명의 기독교인이 재판 없이 투옥 당하고 66개의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오픈도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편지를 쓰며 박해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단체와 동역하여 날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러나 나는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그것은 '박해받는 크리스천 캠페인 (Save the Persecuted Christians Campaign)' 이다.

아랍어 'nun'은 나사렛을 뜻한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는 크리스천 가정들을 찾을 때 이 글자를 집에 새겨놓고 표적



▶ 중동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시위(위)와 '박해받는 크리스천 캠페인' 배너(아래)(출처: foxnews.com, savethepersecutedchristians.org 사진캡처)

으로 삼는다. 그러나 '박해받는 크리스천 캠페인'에서 이 nun이라는 글자는 핍박 받는 크리스천을 알리는 배너로 쓰인다.

'SaveThePersecutedChristians.org'에 방문하면 무료로 이 배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너를 설명하는 포스터와 이 캠페인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구 소련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을 구한 캠페인처럼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들이 변화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전 세계의 크리스천 박해가 멈춰지길 소망한다. 많은 교회의 참여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복음만이 다음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제3회 교육선교사 국제컨퍼런스 열려

다음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는 국내외 기독교인들이 주관한 교육선교사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L국에서 열렸다.

제3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해브론원형학교와 캄보디아의 소금과빛국제학교, C국 G학교, L국 G학교에서 100여 명의 교육선교사들이 참석해 강의와 예배,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세대를 섬기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강의 '청소년의 마음 이해'의 강의를 맡은 염남희 전도사(성

경적상담 책임연구원)는 “신체적 발달로 급격한 변화를 맞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불안과 싸우고 있는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의 눈길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담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경청을 통해 다음세대를 알아가고 그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번째 강의는 '성(性)'을 주제로 이종태 목사(조쉬맥도웰미니스트리 한국사역)가 맡았다. 이목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이성의 상대'에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

는 마음의 상태'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양육하여 보호하듯 사랑한 것'이라고 정의한다(엡 5:29)”고 밝혔다. 그러므로 사랑의 개념도 모르면서 사랑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다음세대에게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를 가르치고, 성범죄와 음란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성령충만함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남용 선교사(조쉬맥도웰미니스트리 본부사역)는 '교사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지도하는 법'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문화로 굳어져 버린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규칙으로 받으면 율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규칙이 중요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의는 '희망의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임예리 간사(게인코리아 프로젝트 팀장)가 맡았다. “멘토



▶ 제3회 교육선교사 국제컨퍼런스 전경

(신뢰할 수 있는 스승, 친구, 지도자)는 안내자요, 지지자”라면서 “멘티(멘토의 상대자)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안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멘토링의 방법은 질문, 경청, 수용, 신뢰”라면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면 질문하게 되고 대담을 경청하게 될 때 상대는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신뢰감이 생기며, 내가 끝까지 사랑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면서 “주님이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끝까지 아이들을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각 학교 교육선교사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고백들을 통해 모든 교육선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그 사랑을 다음세대에게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폐회 직전, 복음만이 다음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선교사 사명선언문을 선포했다. 지난 2017년 제2회 대회에서 채택된 사명선언문은 복음과 기도, 교육, 선교, 공동체-연합에 대한 5가지 주제에 대한 교육선교사의 사명을 정의한 것이다.

다음 대회는 2019년에 캄보디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GNPNEWS]

Y.K.



▶ 교육선교사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한 외국인 교사들



기획 | 조선선교열전 (25) - 제주도 편(끝)

보이지 않는 선한 싸움의 일꾼들, 대(對)공산권방송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1156’ 이 숫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북녘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숫자가 극한 가뭇의 단비만큼이나 귀하고 반가운 숫자이다. AM 1156 khz, 이것은 다름 아닌 극동방송의 주파수다.

한국 성도들은 대부분 FM으로 송출되는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 있는 극동방송은 AM 방식으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서러시아 지역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날씨가 좋을 때



▶ 건물 외벽에 영어와 한글로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세계에’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제주 극동방송

는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도 이 방송이 들린다고 한다. 세계지도정보 책에 자주 등장하는 FEBC(Far East Broadcasting Company)는 극동방송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명칭이다.

오키나와에서 제주로 옮겨온 대(對)공산권방송

1973년 아세아방송으로 출발한 제주극동방송의 송출시설은 당초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대공산권 지역을 대상으로 송출하던 방송이 일본지역의 송신소 조차(租借)연도

가 끝나면서 새로운 지역을 찾던 중 한국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50kw의 막대한 송출력을 갖춘 아세아방송이 제주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 아세아방송은 훗날 2001년에 극동방송과 합병되어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됐다.

아세아방송의 출범은 일본의 FEBC가 설 자리가 없어 쫓겨나듯 이전한 것 같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제주는 그 위치상 방송 타겟인 극동지역을 커버하기에 최적의 위치였다. AM 방송은 전파의 특성상 앞쪽을 향해 전파가 나아가기 때문

에 앞에 걸림이 될 만한 높은 건물이 없어야 하고, 송신탑을 위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의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제주 애월읍이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하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시간대에는 하늘에 ‘전리층’이 형성되는데 이때 앞을 향해 뻗어 나가는 AM 전파가 이 전리층에 부딪혀 더 멀리까지 깨끗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새벽 시간 북한에서는 깨끗하고 선명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성도들로부터 종종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나 그들의 신앙을 기록한 물품들이 제주극동방송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한번은 한 성도가 자신의 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재정을 모아 헌금한 적도 있다고 한다.

전파선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먼 곳에 있는 영혼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섬기는 이들조차도 ‘정말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걸까? 이 방송을 듣

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성도들과 중국의 지하교회뿐 아니라 이 방송이 들리는 곳곳에서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나, 이 방송이 그들의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져오고 있다. 이것은 마치 영적전쟁처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

역사 속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던 제주 땅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친히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미디어라는 영역을 감당하는 전파선교사들을 세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가르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다. 할렐루야! [GNPNEWS]

김성욱 선교사



선교 통신

“전쟁은 심판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이 시작된 그해 11월, 주님은 우리를 우크라이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6개월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중보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휴전상태지만 정부군과 반군이 절반씩 장악하고 있어 산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는 교회를 향한 박해도 있습니다. 반군이 장악한 곳에서는 교회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6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교회는 오직 정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주장하는데, 생명 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유럽과 미국의 지원으로 재정적으로 부요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3년 전에 비해 많은 집이 건축되고, 도로가 수리되었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등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대학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서점에서 러시아어 책을 팔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대학의 러시아어과가 없어지거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와 교회지도자들도 러시아를 싫어하는 표현을 할 만큼 반감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쟁 속에서도 교회들의 기도를 심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일간 국가를 위한 금식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금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도 종파와 교단을 넘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심판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

원의 기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요, 복음의 확장이요,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시작된 이 기도는 종파와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게 했습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간구했고, 어디에서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 교회 성도들도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열방에 알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교회를 깨워 기도로 선교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는 교회개혁과 지도자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합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전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현대교회, 즉 특별한 교단의 성향을 넘어 개교회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게 더욱 복음의 가치로 충만하여 서로 섬기고, 조



본지 자료 사진

건 없이 연합하고, 교리적 갈등을 넘어 복음으로 하나됨을 지키고, 기도로 마지막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전쟁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우크라이나= 김맹관·유향순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신청은 최소 1명 이상에게 신문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6. 27 ~ 7. 19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고희자 권혜령 김경선 김동영 김선희 김애심 김유남 김장일 노은옥 박성규 서범일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안은경 안현숙 오성애 유자인 윤혜숙 이남준 이란영 이삼연 이선영 이 순 이준진 이진희 임종태 장선주 정영숙 정해월 조상국 조형광 차인순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문광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썬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은혜의샘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트리니티 평안교회 팔복감리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사랑에 매여, 더욱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선택한 **김사원** 형제(봉화현교회)

자신이 헌신을 결정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모세처럼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다. 그는 이제 고백한다. “제가 누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 셋을 낳고, 기다림에 지쳐 흔들릴 때 “주님, 저 불러주신 거 맞아요?” 라고 묻기도 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김사원 형제를 만났다.

“저는 불교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고부 갈등을 겪으시던 어머니께서 옆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시면서 저도 같이 다니게 됐죠.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제게 가위눌림이 계속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탄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저희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다니며 착한 사람인 척하고 자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른 흉내를 낸다면서 고스톱도 치고, 교회 수련회에 가면 회개하고, 그렇게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대학시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운동권 학생들과 어울려 3년 가까이 학생운동에 관여했다. 그런데 양심으로는 올바른 말을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향이 시

작되면서 새로운 삶을 갈구하게 된 것이다.

학생운동에도 관여했지만...

“운동권 동아리에서 좋아하던 자매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군입대가 현실로 다가와 휴학을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수요일에, 금요일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죄된 실체를 보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 자매를 좋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드렸어요”

군대에 가서도 그 은혜는 지속됐다. 제대 후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역에 지쳐 빈자리가 생길 때면 그곳에서 봉사했다. 그 시간이 좋았다. 찬양을 드릴 때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친구와 교회에서 아예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자 집에서 아예 신학을 하라고 하셨죠. 사회에 나가 어떻게 살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목회자의 길이 맞는 것 같다며 목사님이 돼야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대접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러다 평소 믿음의 교제를 하던 청년부 선배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거죠. 뜻밖의 장소가 허락되고, 청년들이 많이 오가면서 신앙상담을 하려고 방문하기도 하는 열린 공간이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정말 즐거웠어요. 함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3D 업종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고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하니 계속 다른 일들이 연결됐고 벌어들인 재정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로 흘러보냈어요. 주님이 우릴 책임지시니까 뭘 쌓아두지 않았어요. 5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갑함이 찾아왔어요. 선배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고 분쟁이 생겼어요. 예전보다 현격히 줄긴 했지만 음란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다니던 대형교회에 대한 판단도 들었죠. 육체노동을 할 때여서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비쩍 말라갔어요. 나를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괴로웠어요”

2009년, 공동체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왔다. 아버지께서도 급작스럽게 위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면서 임종을 맞으셨다. 모든 게 끝난 듯, 절망이 찾아왔다.

“그 시기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섰어요. 2010년 6월이었어요. 5박 6일간 진행되는 복음학교에 가게 됐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죄인을 불러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도 존재적 죄인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에는 부담을 떨어버리려 빨리 해버렸죠.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나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졌어요. 그 이후 바로 중보기도훈련과정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던 때였는데, 어떤 자매를 만나든지 결혼 전까지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과 달리 계속 무너졌어요. 너무 괴로워 주님께 울부짖는 자리에서, 비로소 존재적 죄인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제게 실체가 되니까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체감이 되더군요”

복음 앞에서 드러난 존재적 죄인

이제는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홀로 되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그즈음 세 가정이 모여 공동자본으로 카페를 개업했다. 어머니의 생활을 돌봐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에 기쁘기도 했다.

“사실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삶은 제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컸던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거였죠. 그런데 카페를 시작한 이후, 하루 일과에 매이다보니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마음과 육체 모두 힘이 들었어요. 결혼 후 아내는 중보기도훈련을 받으며 복음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갔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치 주님이 보호의 손길을 살짝 놓아버리고 방치된 것 같았어요. 1년간 일만 하면서 어둠의 골짜기에 있었어요. 동업이다보니 정리도 힘들었어요. 결국 양해를 구하고 목마름으로 다시 신앙훈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듯 저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은혜로 한 걸음씩 순종하다보니 주님은 더욱 깊은 갈망을 주셨다. 이번에는 아예 6개월 동안 합숙하며 진행되는 공동체훈련을 받고 싶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주님께 아이를 주시면

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를 낳은 후 지금 순종 못하면 다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아내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강원도의 훈련학교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신혼여행을 하는듯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내도 함께 이 걸음을 걸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6개월 합숙훈련을 마치고 계속 복음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탄다고 해서 아내를 두고 홀로 달려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주님은 둘째 아이를 허락하시고 아내와 가정을 섬기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셋째까지 허락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셨다고 물으시는 듯 했다.

“그동안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내에게는 회복의 시간과,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서 순종할까 구하다가 아내와 함께 지역의 중보기도훈련과 선교훈련과정의 동역자로 섬겨왔어요. 아내에게도 이 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작년 1월부터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재정의 걸음을 걷게 하셨어요”

주님만 의뢰하는 믿음재정의 삶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래전부터 사모했던 삶이었다.



▶ 2014년 6개월의 강원도 복음훈련과정 중 잠비아 아웃리치에서

순종하겠다고 사인을 구했다.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너무 확실한 사인이었다.

“하지만 가지 못했어요. 아내 혼자 출산하게는 할 수 없더군요. 부르심은 명확한데 결국 응답하지 못한 저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원형탈모가 생길 정도였죠. 그러나 ‘유보된 순

“마음은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지만 결정이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공동체훈련 과정 중에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넌 나의 종이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순종할 때마다 아내가 “우리가 선교사도 아니고 후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6)

“존재적 죄인의 최후 절망”

기가 막히고 답이 없어 안타까운 인생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고로 인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밋에 걸린 짐승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앞에 선 죄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직면(直面)했던 다윗은 율법 외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19:12~13) 모를 때는 몰라서 지킬

수 없고, 알고 난 이후에는 알고도 지킬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게 율법을 받아 든 인생의 절망이다.

‘중국의 웨슬리’로 잘 알려진 송요한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의 자기 과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존재한다.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 사이에도 넘어서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 우리의 허영과 그분의 단순함,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그분의 자기 부인, 우리의 타인에 대한 의심과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신뢰, 우리가 타락한 자들을 보며 느끼는 자기의와 그분의 죄인을 향한 슬픔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 서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최후의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일라스트= 권숙진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인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최후의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구속자’였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 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그리고 그는 ‘감히’ 구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이 그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했다.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때에 드렸던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 때가 왔을 때 언약하신 대로 ‘고엘(구속)’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구속을 완성하셨다. 구속자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죄의 빚(debt)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의(義)를 값없이 베푸신다.

그 결과 이제,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완벽한 진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했던 죄인에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이루어진다. 저주 받은 옛 자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세례받고, 죽음에 넘겨지고, 이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비하신 이 비밀을 믿음으로 취(取)하는 자는 누구나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신다.(2016년 12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국 000선교사 부부

7월 발간

야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Interview

<5면에 이어>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

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반문하더군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웃리치를 나가기 위해 재정을 벌었어요. 그러던 중 2016년 말 기도모임에서 주님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믿음재정으로만 살 것을 결정했어요.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나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고 주님께만 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해 1월, 네팔에서 진행된 복음학교를 섬기러 떠날 때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론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부르며 바로에게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처럼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도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

“작년 5월 셋째 출산을 앞둔 아내가 이번에는 꼭 산후조리

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둘째를 집에서 낳으면서 아이도 아내도 고생이 심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두세 달만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3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둘째 날이 되자 고민이 됐어요.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열방기도를 하는데 자꾸 거르게 되면서 마음이 편치않았죠. 셋째 날도 아침부터 허겁지겁 나가는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해 약속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는 이사야 56장 말씀이었어요.”

E.J.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 아내와 셋째 노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설 것을 고백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역중인 윤성운, 김경희 선교사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체훈련을 마치고 한 훈련생이 고백한 ‘나의 복음’과 훈련과정을 통한 은혜를 전해왔다. ‘나의 복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울을 통해 계시된 십자가 중심의 복음과 함께 자신에게 실체된 복음의 진리를 일컫는 믿음의 선포를 가리킨다. <편집자>

저스뎡의 복음

“제가 태어난 2001년에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갈라셨습니다. 저는 12살에 가족을 떠나 가축을 하여 혼자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술도 마시며 간음도 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대적했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죄인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았던 나는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기 위해 사람을 속이며 도

독질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하나님은 저를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의 본성을 숨긴 채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는 척 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실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따라 저는 2000년 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죽어 마땅했던 나의 존재, 사탄의 종노릇 하였던 나의 병든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생명, 자격,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저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설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드립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나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나눌 것을 결단합니다. 형제들에게 저의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도 하겠습니



본지 자료 사진

다. 주님이 정말 제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초대에 감격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12주간 콩고민주공화국의 작은 도시 고마에서 저희 부부는 ‘예복’과 ‘저스뎡’ 두 형제와 함께 집중영성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2시간 씩 저희는 번갈아가며 두 형제에

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큰 단원을 시작으로 ‘믿음’, ‘마음’에 이르기까지 진리로 우리를 살피고 함께 복음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점심 이후엔 성경 통독 그리고 ‘연합과 섬김’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두 형제는 생전 처음 듣는 십자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나아왔고, 죄 된 존재의 실상 앞에서 탄식하였습니다. 나의 복음은

스스로에게뿐 아니라 듣는 모든 이에게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합니다. 4박 5일간의 아웃리치도 다녀왔습니다. 이주위라는 섬의 어린이와 청년들 그리고 과부들에 이르기까지 7번의 복음 선포 시간도 있었습니다.

집중영성훈련이 마쳐질 즈음 저희는 현지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 가족 대표를 초대하여 작지만 위대한 파송식도 가졌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외침을 우리 심장에 새겨주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초대에 감격했습니다.

이제 7월 23일에서 28일까지 현지 청소년 대상으로 복음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형제가 이 일에 함께 섬기게 됩니다. 진리로 더욱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GNPNEWS]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철을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계단을 오르다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대화가 열리면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양말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날도 “버스가 지나다니면 많이 추우니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파시지 그러세요?”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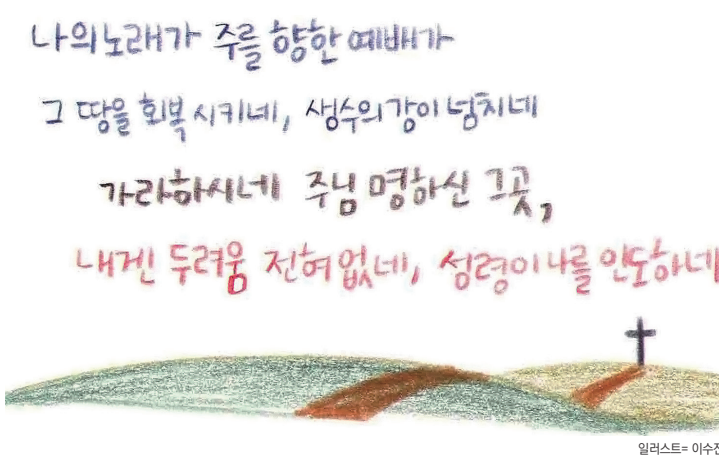
집사님이 불편한 몸으로 좌판에서 양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좌판 위에 양말을 진열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도움을 드릴 것이 없어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니 집사님은 다른 사람 못지않은 삶의 질곡을 거치며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하

고 있었습니다. 어느 편 그 고통으로 며칠씩 장사를 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묵상말씀을 나누고 복음 기도신문을 전하면서 꽤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버스를 여러 대 놓쳐 환승할인을 받는 시간도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의 삶의 애환을 묵묵히 듣고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집사님은 힘을 얻고 자신의 영이 살아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행여 그냥 지나치려는 날이면 ‘오늘 묵상한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고 가라’고 불러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가면 성경을 펼쳐 놓고 보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나보다 주님과 교제에 더욱 깊어진 것 같아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를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순간 ‘잘못 부르셨나?’해서 의아하다는 듯 바라보며 “저 선교사 아니에요.



일러스트= 이주진

전도사예요”라고 했더니 “내가 보기에 전도사님은 이미 선교사님이예요.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 생명이 흘러오는 것을 알겠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그것은 복음을 만나던 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우리 가정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 선교사지. 나 선교사 맞네’

오늘도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러 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 일은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기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통치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서서 주님 속히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GNPNEWS]

정순복 전도사



복음의 능력

거룩한 까닭

선한 행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선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거룩한 행위가 거룩한 까닭은 그것이 다른 행위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판단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화가, 광부, 농부 또는 목사가 될 것이다. 사람의 ‘행위의 종류’가 아닌 그의 존재가 그의 ‘행위의 질’을 결정지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라기보다 어떤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규장각>

김용의

복음의빛선교회 대표

나 에 게 실 제 가 된 십 자 가 복 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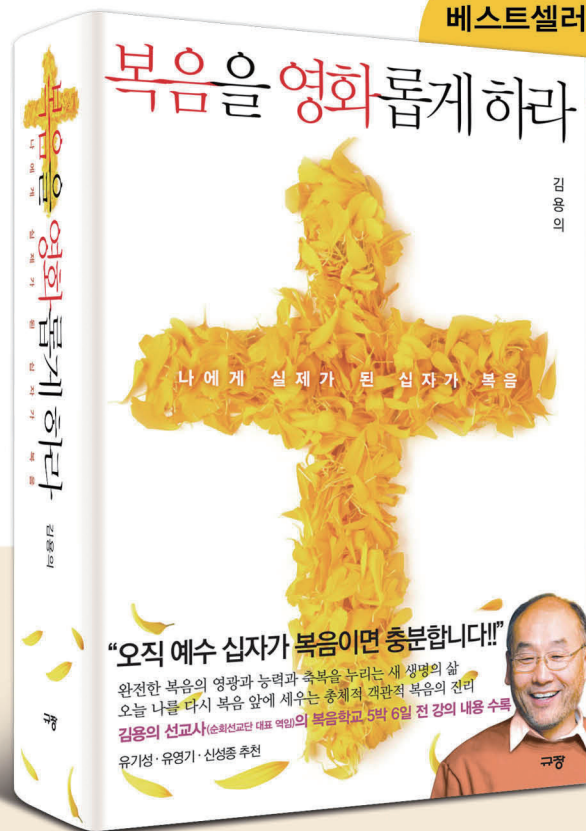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오늘 나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총체적 객관적 복음의 진리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역임)의
복음학교 5박 6일 전 강의 내용 수록

유기성 · 유영기 · 신성종 추천

김용의(복음의빛선교회 대표)지음 | 양장본 | 920쪽 | 값 45,000원

베스트셀러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학교 김용의 선교사의
사자후,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실재를 경험하게 하는 책!!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피리를 불어도 좇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에 오직 복음이 전부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는 하나님나라의 복음 전도자.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순회선교단의 사명을 따라 한국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는 복음의 증인 된 순회 선교사다. 이 책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200여 차례 이상 진행된 복음학교에서 저자를 통해 나뉜 복음의 핵심 진리, 구원의 복음이 실재가 되도록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만 철저히 집중하고 고만하고 묵숨 걸고 부딪쳐도록 하는 강력한 훈련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순회선교단 창립 멤버이자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헤브론 원형학교와 헤브론 선교대학 이사장이자 복음의빛선교회(Light Of the Gospel Mission) 대표로 있다.

